

베누티의 소수화 번역 - 또 하나의 명칭 ‘이국화’ -

김가희·박효진·박윤희*

【요약문】 본 연구는 첫째, 베누티가 주장하는 좋은 번역의 의미와 이국화로 더 잘 알려진 소수화번역을 베누티 자신의 번역사례를 통해 고찰한다. 둘째, 몇 가지 문학번역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베누티의 소수화 번역이 한국문학번역 상황에 적용가능한가를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국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장치의 기능을 담당하는 잔여 태인 비속어, 관용구, 문학적 수사인 비유, 그리고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해당 텍스트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원전 텍스트의 선택 기준은 출발 문학계의 정전체계 안에서 주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혼질적 담화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혼질적 담화 생성을 통하여 가독성은 높지만 텍스트가 낮설게 보이는 효과를 베누티는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이국화 즉 소수화번역인 것이다. 그러나 문학번역 텍스트 분석 결과 베누티의 소수화번역 이론은 한영 번역의 사례를 제외하고 영한 번역의 사례에서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주제어】 베누티, 소수화 번역, 이국화, 발터 벤야민, 번역가의 과제

* 주저자 : 김가희(인천대학교)
공동저자 : 박효진(인천대학교)
교신저자 : 박윤희(동국대학교)

1. 서론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번역이란 원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한 것인가?”¹⁾라는 번역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과 함께 문학작품과 그 번역과의 이분법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작가와는 다른 입장을 견지해야만 하는 번역가의 과제²⁾를 제시하고 있다. “그 어떤 시도 독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그림도 관람자를 위한 것이 아니며, 그 어떤 심포니도 청중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벤야민은 문학작품을 포함한 모든 예술작품은 그 수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이는 곧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실체를 전제로 하는 예술의 관점에서 본 문학작품의 본질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무엇도,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도 없기 때문이다. 이점이 바로 문학작품과 그 번역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점(“the differing status of original and translation in the domain of art”)인데, 수용자를 의식하면서 정보라는 문학작품의 비본질적인 것(“nothing other than a message—that is, something inessential”)을 우선적으로 전달해야하는 것이 번역이기 때문이다³⁾.

이 점은 문학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장르로 인식되고 있는 시와 시 번역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형진은 시의 운율성, 함축성, 간결성, 상징성, 다의성과 같은 미학적 특징들뿐만 아니라 현대시의 난해함이 일반 대중 독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기도 하며 번역의 난해함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이로 인하여 단일한 해석이나 분석의 어려움이 발생하며, 번역의 평가 역시 오역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한계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시의 번역 불가능성은 역설적으로 번역 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다양한 실험적 번역시도를 이끌어내고 다양한 재번역과 지속적인 재해석을 통해 텍스트에 생명력을 계속해서

1) Walter Benjamin, “The Translator’s Task.” Trans. Steven Rendall. in *TTR: Traduction, terminologie, rédaction*. Éditeur, 10(2), 1997, 151쪽.

2) The translator’s task consists in this: to find the intention toward the language into which the work is to be translated, on the basis of which an echo of the original can be awakened in it(위 책, 159쪽). (번역가의 과제는 번역이 이루어지는 도착어 언어에 맞게 그 의미를 찾는 것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번역을 통해서 원작을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3) 같은 곳.

불어 넣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4).

이는 시가 독자를 염두에 두고 창작된 것이 아니며, 불가해하고 심원한 것이 시의 본질이며, 번역을 일종의 양식(“Translation is a mode”)⁵⁾으로 간주하는 벤야민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번역을 양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번역 가능성(the original's translatability)이 문학 작품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원작의 자질과 우수성이 높을수록 뚜렷한 양식을 지닌 번역을 위한 지렛대가 되며 번역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6). 그런 의미에서 번역은 비본질적인 것을 전달하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원작만큼의 의미를 지닐 수 없을지 모르지만 원작의 영속되는 삶의 단계들로 원작의 생명이 재번역과 재해석을 통해 항상 새로운 최선의 것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의 양식으로 원작과 서로 공생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문학작품과 그 번역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번역가는 자신의 언어로 전달하고자하는 그 의미가 이국적인 원전의 반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 한 지점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다. 이 한 지점을 찾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크게 경험과학(empirical science) 구축을 지향하는 언어학적인 방법과 번역 실천과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정치적 가치를 강조하는 미학적인 접근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7). 베누티(Venuti)는 문화 정치적 방향의 연구를 추구하는 번역가점 번역 이론가로서 혼질성8) (heterogeneity)을 번역의 근본 전제로 삼고 이국적인 원전의 반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수화하는 번역(a minoritizing translation)을 지향한다. 소수화하는 번역가가 생산하는 혼질적인 담화는 텍스트의 언어, 문화적 차이들을 드러내고 다양한 독자들, 즉 대중 독자층과 엘리트 독자층 모두에

4) 이형진, 「시 번역 불가능성의 역설 - 두보의 한시 春望(춘망)의 영어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한국번역학회, 16권 5집, 2015, 136-137쪽.

5) Walter Benjamin, 위 책, 159쪽10.

6) Walter Benjamin, 위 책, 164쪽.

7) Lawrence Venuti,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Routledge, London & New York, 1998, 8쪽 재인용.

8) 혼질성(heterogeneity)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는 특성으로 베누티가 자신의 저서 *The Scandals of Translation*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번역과 번역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언어, 문화, 정치적 상황이 혼재하는 상태를 담고 있다는 의미와 좋은 번역이 차이를 드러내는 혼질적 담화를 생산한다는 이중적 의미로 혼질성이 사용되고 있다고 해석한다.

게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좋은 번역이라고 주장한다⁹⁾.

본 연구의 목적은 베누티가 주장하는 좋은 번역의 의미와 이국화(foreignization)로 더 잘 알려진 소수화 번역이 무엇인지 베누티 자신의 번역 사례를 통해 고찰한다. 더 나아가 몇 가지 문학번역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베누티의 소수화 번역 전략이 한국 문학 번역 상황에서 적용해야만 하는 좋은 번역의 전략인지 논하고자 한다. 베누티의 논의는 이국화 개념으로 국내 연구들뿐만 아니라 번역학을 전공하는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자주 다루어지고 때론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축소되기도 하며,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그대로 한국 상황에 적용¹⁰⁾되는 바 베누티의 소수화 번역, 즉 이국화 이론을 베누티 자신의 번역 사례를 통해 고찰해보고, 또한 이를 적용하여 문학번역 사례를 비평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2. 본론

문학 번역은 예로부터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교류가 많은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어떤 한 국가의 문학작품을 세계로 보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의 원전을 도착어로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좋은 번역인가? “좋은 번역이란 이해하기 쉽게 해 주는 것, 즉 번역 도착어로 외국 텍스트에 담겨 있는 이국성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¹¹⁾라고 주장하는 베르만(Berman)과 입장을 같이하는 베누티는 번역을 통하여 외국 텍스트의 이국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두 가지 전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로 원전 텍스트의 선택이다. 소수적 위치, 즉 출발 문화권에서도 소수적 성격을 유지하며 동시에 출발 문학계의 정전(canon)체계 내에서도 주변적 위치를 점하는 텍스트를 선택하는 것이다. 혹은 미국 영어로의 번역을 통하여 미국 표준어와 지배적인 문화 양식을 소수화 할 수 있는 외국 텍스트를 선택하는 것이다. 베누티는 소수화를 지향하는 번역을 기획

9) 위 책, 9-12쪽.

10) 이상원, 「베누티의 이국화와 자국화, 그 적용을 위한 고찰」, 『T and I review』,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제1집, 2011, 113-117쪽.

11) 위 책, 11쪽, 재인용.

하면서 19세기 이탈리아 작가 타르케티(I. U. Tarchetti)의 작품을 번역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그 시대 이탈리아의 지배적인 낭만주의 문학사조에서 벗어난 주변적 장르의 텍스트¹²⁾이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타르케티의 텍스트가 미국 내 다양한 문화의 독자층과 만나 미국의 지배적 가치들을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일본작가 요시모토 바나나의 작품 『키친』의 영역본¹³⁾도 “비판 정신이 살아있고 역사의식을 갖춘”¹⁴⁾ 다른 일본 여류작가들의 작품과는 달리 미국 문화의 가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텍스트로 일본 문학에 있어서 규범적이고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작품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혼질적 담화(heterogeneous discourse)의 가능성이다. 이를 위하여 잔여태¹⁵⁾(remainder)를 사용하여(release) 도착어 언어를 낫설게 만들어, 읽고 있는 텍스트가 원전과는 다른 번역임을 드러내는 번역을 하는 것이다. 베누티는 이러한 번역을 좋은 번역이라고 보고 소수화 하는 번역이라 한다. 이러한 혼질적 담화가 이국성을 더 결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장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혼질성은 대중적인 접근, 즉 독자의 독서에 어려움이 있을 만큼 낫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¹⁶⁾. 그렇다면 이런 혼질적 담화란 무엇인가?

베누티는 타르케티의 텍스트를 번역하면서 원전의 시대와 현재와의 시간적 거리뿐 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영어의 역사에 나타난 고문체(archaism)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고문체는 도착어 즉 현대영어 속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¹⁷⁾고 언급한다. 다시 말해 이탈리아 원문에 해당하는 번역문으로 일상적인 표현 즉 너무 잘 읽히는 표현인 “and I could never” 대신 “nor could I ever”라는 도치문을 사용하고 현대적인 구어체인 “no matter how hard I tried” 대신 “no matter how

12) 타르케티는 고딕 소설(Gothic tale)과 플로베르(Flaubert) 및 졸라(Zola)의 실험적 리얼리즘 장르의 텍스트를 선호했다(Venuti 1995a; Venuti 13쪽 재인용).

13) 미건 배커스(Megan Backus)가 1993년에 번역함.

14) 위 책, 84쪽 재인용.

15) 잔여태는 현대 표준어에 대한 다양한 음운론적, 어휘적, 통사적 변이로서, 지역 및 사회적 방언, 표어 및 상투어, 기술용어 및 속어, 고어 및 신조어, 은유와 언어유희 같은 문학적 수사, 문체적 변화, 외래어 차용어(박효진 100쪽)를 뜻한다.

16) 위 책, 12쪽.

17) 위 책, 14쪽.

much I endeavored”와 같은 고문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미건 배커스의 영역본 『키친』에서도 전반적으로 현재 사용되는 표준 영어로 번역되는 가운데 어휘와 구문에서 구어적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비현실적인 낭만주의를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시적이며 의고적 단어와 구어적 표현¹⁸⁾을 결합하는 방식의 번역전략으로 가독성은 높지만 텍스트가 낯설게 보이는 효과를 거두어 이국성을 부여하였다고 평하고 있다. 또한 영어로 음차된 이탤릭체 일본어를 텍스트 전반에 사용함으로써 일본의 미국화 및 미국독자들이 문화의 차이를 느끼게 하였다는 것이다¹⁹⁾. 따라서 베누티에게 번역이 전체적으로 이해가능하면서도 몇몇의 전략적인 부분에서만 잔여태가 표출된다면, 이것이 적절한 수위의 혼질적 담화가 되고 이국성을 표출한 번역임을 독자가 인식할 수 있는 소수화를 지향하는 번역 혹은 이국화 전략의 번역인 것이다.

“중요한 점은 번역가가 번역의 자민족 중심적 동향을 다소 전향하여 번역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해야만 하는 자국적 용어들을 탈중심화 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국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차이의 윤리이다.”

The point is rather that a translator can choose to redirect the ethnocentric movement of translation so as to decenter the domestic terms that a translation project must inescapably utilize. This is an ethics of difference that can change the domestic culture²⁰⁾.

“차이의 윤리”를 강조하는 베누티와 유사한 관점에서 포셋(Fawcett)은 문화적 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번역가는 번역과정에서 표준어(“the prevalent ‘correct speech’”)로 옮기는 방법 이외의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이국성을 살리는 좋은 번역을 위한 언어의 다양성

18) 번역문 “I am dead worn out in a reverie,”에서 dead worn out(과김치가 되다) 이라는 구어적 표현과 reverie(몽상)라는 격식 있는 시적표현을 결합한 것을 뜻한다.

19) 위 책, 83-85쪽.

20) 위 책, 82쪽, 번역은 연구자의 것임.

을 표현할 두 가지 대체 언어로 ‘지역방언(dialect)’과 ‘사회방언(sociolect)’을 제시한다²¹⁾.

이와 같은 베누티가 제시한 두 가지 전제, 즉 원전 텍스트의 선택과 혼질적 담화를 기준으로 본 논문은 문학번역 텍스트를 원문과 비교하면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앞서 먼저 번역은 두 언어가 수반되는 관계로 출발어와 도착어 사이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영한번역 혹은 한영번역으로 분리한다면, 번역 텍스트 분석에서 두 언어의 위상이 번역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력을 간과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발어보다 도착어의 위상이 높은 경우 상향 번역(translation up), 즉 독자층이 넓은 언어로 번역이 이루어짐을 뜻하기도 하는 반면, 하향 번역(translation down)은 출발어보다 독자층이 적거나 문화적, 경제적, 종교적 위상이 낮은, 널리 쓰이지 않는 언어로 하는 번역으로 상정된다. 이 두 방향의 번역의 차이는 상향번역의 경우 변안의 성격이 강해서 원문 텍스트가 지닌 이국성의 흔적을 대부분 지워버리지만 하향번역의 경우 원문의 이국성 자체가 위상을 지니기 때문에 출발어의 흔적을 눈에 보이게 남겨두는 경향이 있다²²⁾는 점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언어 간 비대칭 관계에서 발생하는 영향력을 배제하고 베누티의 두 기준만을 텍스트 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예시의 분류기준은 잔여태인 비속어, 관용구, 문학적 수사인 비유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사회적 통념으로 구분하였다.

1) 비속어

<예시1>

ST: You know you'll fall for each other and that she'll take you home with her and let you (1) screw her all over the house. I began to get (2) a boner thinking about it. I moved the cap over my lap and closed my eyes and tried think about baseball.(8쪽)

21) Peter Fawcett, *Translation and Language: Linguistic Theories Explained*. Jerome, Manchester & Northampton, 1997, 117쪽.

22) David Bellos, *Is That A Fish In Your Ear?: Translation and The Meaning of Everything*. Penguin Books, New York, 2011, 207-209쪽.

TT1: 여자도 첫 눈에 나에게 반해설랑은,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1) 그렇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다. 이상하게 자꾸만 (2) 그런 쪽으로만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할 수 없이 모자를 무릎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은 다음 야구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써 보았다.(251쪽)

TT2: 나와 그녀가 서로 반해서, 그녀가 나를 집으로 데려가 집 안을 헤매고 다니며 (1) 섹스를 하게 되는 상상도 그 생각을 하니 (2) 발기가 되기 시작했다. 나는 모자를 무릎 위로 옮겨놓고 눈을 감은 채 야구에 대해 생각하려고 노력했다.(82-83쪽)

<예시2>

ST: I had a big boner and she waved me over with her hand.(11쪽)

TT1: 내가 몸이 달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녀는 손을 흔들어 나를 가까이 오라고 부른다.(225쪽)

TT2: 내 페니스가 뻗뻗이 일어서고, 여자는 손짓으로 나를 가까이 오라고 한다.(87쪽)

<예시 1>과 <예시 2>는 1989년 레이먼드 카버(Raymond Carver)의 단편집 *Where I'm Calling From*에 수록된 *Nobody said anything*에서 발췌한 것이다. TT1은 1996년 집사재에서 출판한 안중철 번역본이며 TT2는 문학동네에서 출판한 손성경 번역본이다. 예시1은 학교를 아프다는 핑계로 빠지고 뉘시를 가던 중 만난 빨간 차를 탄 여자에게 차를 얻어 타고, 차 속에서 그 여자를 상대로 성적 상상을 하는 장면이며 예시2는 여자와 헤치고 뉘시를 하면서 그 여자에 대한 성적 환상을 품는 장면이다.

<예시 1>과 <예시 2>의 ST 단어 *boner*과 *screw*는 북미의 비속어(vulgar slang)로 분류되는 단어들로 각각 ‘성기의 발기,’ ‘섹스하다’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비속어를 번역하는데 있어 TT1과 TT2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TT2는 사전적 의미를 살려 번역을 한 반면 TT1은 *screw*를 ‘그렇고 그런 짓’으로 *boner*를 ‘그런 쪽으로만,’ ‘몸이 달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TT1에서는 신체적 반응을 숨기기 위

해 ‘할 수 없이 모자를 무릎위에 올려놓고’ 성적 충동을 자제하기 위해 ‘눈을 감은 다음 야구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써 보았다.’의 의미가 너무 짧게 다가온다. ST가 대표적 미니멀리스트인 카버의 텍스트로 서사 방법이 전통적인 글쓰기와 크게 다르다²³⁾는 점을 고려했을 때 표면적이고 직설적인 카버의 글쓰기 스타일을 반영한 번역으로 보기 어렵다²⁴⁾. 그렇다면 베누티의 관점을 적용해 보자. 이 텍스트는 출발 문화권에서 소수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정전이 아닌 주변 문학 텍스트로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된다. 두 번째로 원문에서 사용된 비속어가 사전적 의미로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TT2와 달리 TT1 번역 텍스트에서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인 ‘그렇고 그런 짓,’ ‘몸이 달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로 바뀌어 있다. 이를 전반적으로 간결하고 직설적인 번역 텍스트에 나타난 조그마한 일탈(deviation)²⁵⁾로 간주하며 번역가의 의도적인 전략이라 볼 수는 있지만 이를 잔여태로 보기는 어렵다.

2) 관용구

<예시1>

ST : He wanted to see where Doreen worked, and he wanted to see if he could order something on the house.(44쪽)

TT1: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다.(75쪽)

-
- 23) 전통적인 글쓰기는 일반적으로 갈등·전개·절정·결말과 같은 직선적인 플롯(linear plot)을 지양하고 각종 수식어를 절재하며 이야기의 결말을 독자의 상상 속에 맡기는 열린 결말(open-ending)을 사용하는 서사구조를 취한다(노현균, 「미니멀리즘(minimalism)과 에이미 험플(Amy Hempel): 현대 미국 백인 문화의 초상」, 『문학과 영상』, 문학과영상학회, 제8권 1호, 2007, 136-139쪽).
- 24) 김가희·박윤희, 「르페브르의 문학번역 제약 고찰 및 적용: 문학 번역텍스트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37권 2호, 2016, 225-226쪽.
- 25) 베누티는 이러한 일탈이 독자로 하여금 읽고 있는 텍스트가 번역문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의식하게 만드는데, 이러한 일탈은 자국적 잔여태로 표출되기 때문에 자국 독자에게 이러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TT2: 공짜로 주문을 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었다.(39쪽)

<예시2>

ST : She had to cut into the rent money to buy a new uniform.(49쪽)

TT1: 새 유니폼을 사기위해 한층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82쪽)

TT2: 그녀는 새 유니폼을 사기위해 집세 낼 돈에 손을 대야 했다.(47쪽)

<예시 1>과 <예시 2>는 2.1의 예시와 마찬가지로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 *They're not your husband* 에서 발췌한 것으로 예시1은 아내의 일터인 식당으로 찾아가는 남편 얼의 대사이다. ST의 *on the house*²⁶⁾는 ‘무료로 제공되는’의 의미를 가지는 관용구로 TT1에서는 이를 ‘집에서 배달을 시켜’로 번역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번역의 오류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지만 오류들로 인하여 번역 텍스트의 가독성이나 전달력이 떨어진다거나 읽는 즐거움이 줄어들지 않는다.”²⁷⁾는 베누티의 견해는 번역비평이라는 미명하에 오역논쟁을 일삼아온 우리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시2는 무리한 다이어트로 살이 빠진 아내 도린이 몸에 맞는 새로운 유니폼을 사야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장면이다. 남편의 허영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살을 빼고 나서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 미국인들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지출인 집세에 손을 대야하는 상황을 카버식의 비꼬므로 볼 수 있는 장면이다²⁸⁾. 여기서 ST의 *cut into*²⁹⁾가 TT1에서는 ‘한층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로 번역되었고 TT2에서는 ‘집세 낼 돈에 손을 대야했다’로 표현되었다. TT1의 번역³⁰⁾은 한국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관용구이자 한국적 잔여태로 한국어 독자들에게 가독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의미 전달에 무

26) If drinks or meals are on the house, you do not have to pay for them because they are provided free by the owner of the bar, restaurant etc(LONGMAN).

27) Lawrence Venuti, 위 책, 32쪽.

28) 위 책, 230쪽.

29) (저금 따위를) 야금야금 꺼내 쓰다(네이버 사전)

30) ‘허리띠를 졸라매다’는 관용구로 1.검소한 생활을 하다 2.마음먹은 일을 이루려고 새로운 결의와 단단한 각오로 일에 임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리가 없다. 베누티의 이론대로라면 이것은 소수화하는 번옴김, 즉 이국화 번역으로 보아야 하는데, 한국어 잔여태(여기서는 관용구)로 인해 유창한 한국어로의 자국화 번역으로 보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3) 문학적 수사: 비유

<예시1>

ST: "All went merry as a marriage bell until Anne's layer cake was passed.(174쪽)

TT1: 모든 일이 혼례식 종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어 드디어 앤의 층층 케이크가 나올 차례가 되었다.(229쪽)

TT2: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결혼식 종소리처럼 모두가 즐겁게 식사를 하고 드디어 앤의 레이어 케이크를 먹을 차례가 되었다.(270쪽)

TT3: 모든 것이 즐겁고 떠들썩하게 진행되어 가는 동안 어느덧 앤의 레이어 케이크 차례가 되었다.(238쪽)

TT4: 모든 일이 혼례식 종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어 드디어 앤의 층층 케이크가 나올 차례가 되었다.(253쪽)

<예시2>

ST : I expect Jane speaks from mournful experience, for Mrs. Lynde says that her father is a perfect old man crank, and meaner than second skimmings.(244)

TT1: 아마 제인은 그런 슬픈 체험을 했나 봐요. 린드 아주머니가 말하는데, 제인의 아버지는 굉장히 마음이 편협하고 인색하다더군요.(318쪽)

TT2: 제인은 아마 자기의 슬픈 경험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

을 거예요. 린드 아주머니가 제인의 아빠는 정말로 별난 사람이고 인
정머리라고는 없는 끔찍한 구두쇠라고 그러셨거든요.(370쪽)

TT3: 제인은 자신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린드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요, 제인의 아빠는 정말로 별난 분이고 끔
찍한 구두쇠래요.(329쪽)

TT4: 아마 제인은 그런 슬픈 경험을 했나 봐요. 린드 아주머니가
말하는데 제인의 아버지는 심술궂고 유지방을 두 번이나 떠낸 뚝은
우유보다도 더한 구두쇠래요.(344쪽)

<예시 1>과 <예시 2>는 루시 M 몽고메리(L. M. Montgomery)의 작품
인 *Ann of Green Gables*을 ST로 하여 발췌한 것으로 비교하는 번역 텍스
트는 총 네 권³¹⁾이다. 비록 아동 문학 정전의 위치에 있지만 전체적인 문
학 정전 체계에선 아동문학이라는 주변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텍
스트이다. 예시1에서 ‘a marriage bell’은 영국 낭만파 시인 바이런의 자전
적 이야기 시 <차일드 해럴드의 편력> 제3권 21에서 인용한 것으로 이
시에서는 모든 일이 혼례식의 종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뒤에 찾아올
불행을 암시한다. 시의 의미를 예시1의 장면과 관련하여 설명하자면 목사
부부를 초대하여 모임이 즐겁게 진행되지만 그 뒤에 앤의 실수로 모임이
대 실패로 이어짐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³²⁾. 뒤에 찾아 올 불행을 암시
한 이러한 비유를 네 개의 번역본 모두에서 찾아볼 수 없다. ‘a marriage
bell’은 영어권 독자 그것도 시문학에 조예가 있는 독자에게나 이해가 될
만한 출발어 잔여태인 것이다. 잔여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도착어인 한
국어 번역에서 직역으로 번역된 TT1, TT4의 “혼례식의 종”을 한국어 잔
여태로 보기 어렵다. 원문에서 사용된 의도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번역

31) TT1: 루시 몽고메리, 김유경 옮김, 『그린게이블즈 빨강머리 앤』, 동서문화사서울, 2002.

TT2: 루시 몽고메리, 조한중 옮김, 『빨강머리 앤』, 하서출판사, 2004.

TT3: 루시 몽고메리, 강영희 옮김, 『앤 그린게이블즈 앤』, 한국실록출판문화사, 1988.

TT4: 루시 몽고메리, 강주현 옮김, 『빨강머리 앤』, 세종서적, 2008.

32) 김가희, 「‘배경지식의 규변’을 적용한 『빨강머리 앤』. 번역 비평: 문학 번역과 비평, 그 활성화를 꿈꾸며」, 『영어권문화연구』,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 제7권 3호, 2014, 16-17쪽.

된 TT2와 혼례식의 종 혹은 결혼식의 종 그 자체도 생략하고 자연스럽게 번역한 TT3가 충실하지 못한 번역 혹은 오역이라고 까지 치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혼식에서 종을 울리지 않는 한국 문화의 관점에서, 결혼식의 종이 한국어 잔여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베누티의 이국화 번역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국적인 문화를 소개하는 텍스트로 간주될 수 있다.

베누티는 타르케티 소설에 나타나는 지나친 감정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광범위하고 밀도 있는, 그러나 현대의 광범위한 미국 독자층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의고적 표현들을 써서 번역을 낮설게 하는 전략을 썼다고 밝히며 자신의 번역 전략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수화 번역을 지향하는 전략들은 근본적으로 원전에 대한 번역가의 해석(interpretation)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해석에는 번역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문학적 요소들에 의해 조율되고, 번역가가 바라는 자국의 독자의 평가, 독자의 기대치 및 언어형식, 문학 전통, 문화적 전거에 관한 지식수준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베누티가 원전 텍스트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따라 영어의 의고적인 표현을 썼고 이것이 번역을 낮설게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번역이라면 <예시1>의 ‘a marriage bell’을 ‘전통 혼례식장에 울려 퍼지는 풍악소리처럼’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예시2>의 ‘second skimmings’는 구두쇠를 의미한다. 1900년대 전후에는 각 가정에서 짠 우유의 유지방을 모아 버터를 만들었는데, 지방을 두 번이나 빼고 난 뭍은 탈지유는 풍미가 남지 않게 된다. 아무 맛이 없는 탈지유보다 더 인색하다니 그만큼 구두쇠란 의미로 그 시절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표현이다³³⁾. 네 개의 번역본에서 구두쇠의 비유인 ‘유지방을 두 번이나 떠낸 뭍은 우유’를 표현한 TT4를 제외하고는 출발어의 잔여태를 옮기지 않고 의미만 전달하고 있다. 베누티처럼 1900년대라는 시간적 거리를 살리면서 출발어의 잔여태를 도착어의 잔여태로 옮기려 시도해 보자. 그 시대 한국에는 탈지유가 없었던 시절인 만큼 한국의 잔여태를 살려보자면 ‘뭍은 숯농보다 더한 구두쇠’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33) 위 책, 19쪽.

4) 사회적 통념

<예시1>

ST: 아버지는 녀석을 나무에 매달아 불에 그슬리면서 두들겨 패지 않을 거라고 했어. 달리다 죽은 개가 더 부드럽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대.(52쪽)

TT: While father ties the dog to the tree and scorches it with a lamp, he says it isn't to be flogged. He says he heard somewhere that driving a dog to keep running until the point of death is considered a milder punishment.(41쪽)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영어권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소수 언어로 쓴, 한국 문화 내에서도 소수적 성격을 지닌, 정진 체계에서 주변적 위치에 있는 소수 문학 텍스트이다. <예시1>은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그 영역분 *The Vegetarian*에서 발췌한 것으로 기르던 개를 아홉 살 난 딸아이를 물어뜯은 벌로 아버지가 잔인하게 죽여 다 같이 나눠먹는 장면이다. ‘달리다 죽은 개가 더 부드럽다’를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하는 것이 더 가벼운 벌’로의 번역은 영미 권에서 ‘개고기 식용’의 논란을 피하고 독자의 거부감을 막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³⁴⁾며, 오역 논란이 있음에도 사실상 관대한 이해를 받았던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데보라 스미스(D. Smith)의 번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토니 모리슨(T. Morrison)의 작품 *The Bluest Eye* 경우 1993년도 번역본에서는 근친상간과 소아성에 부분이 누락되거나 아버지가 딸을 강간했다고 파악하기 어렵게 번역되어 있다. 반면에 2003년도 번역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비교적 잘 번역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1930년대 미국 독자의 경직된 윤리관에 어긋나지 않게 동성에 부분을 다시 썼다³⁵⁾는 것이다. 이는 번역이 도착어 문화의 제약을 받는 하나의 해석 작업이며 동시에 일반 독자층을

34) 김고금평 외, 「오기·오역도 새로운 시도의 번역...“외국 문화 중심의 해석 필요”」, 『머니투데이』, 2016. 06. 01. (<http://news.mt.co.kr/newsPrint.html?no=2016053010024867243&type=1&gubn=undefined>)

35) Lawrence Venuti, 위 책, 33쪽.

겨냥해 문학적 효과를 주기위해 정확성을 무시할 수도 있는 순문학적 번역³⁶⁾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시 1>에서 보여주는 스미스의 번역은 도착어 사회의 수용성에 맞춘, 자국의 이해 가능성에 따라 텍스트를 다시 고쳐쓰기(rewriting)한 것으로, 소수적 위치에 있는 텍스트로 소수화를 지향하는 번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이 연구는 문학 번역 비평이 빈번하게 베누티의 자국화-이국화 개념이 적용되어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베누티가 주장하는 좋은 번역이란 소수화를 지향하는 번역이며, 이것이 이른바 이국화 번역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번역은 태생적으로 자민족 중심적 활동이며, 번역의 기능이 외국 텍스트를 자국의 것으로 동화, 즉 자국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려한 번역을 바탕으로 외국적인 것을 지나치게 낮설지 않게 전략적으로 몇몇 부분에서만 드러냄으로써 혼질적 담화를 생산하는 것이 소수화를 지향하는 번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혼질적 담화에 사용되는 잔여태도 자국의 잔여태로(현대 영어에 고어를 간혹 섞어 쓰는 정도부터 심한 고어 표현도 사용하기도 함)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독자들이라면 이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구의 정전에 속하지 않는 소수 문학을 서구의 담화에 맞게 번역한다면 그 자체가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소수화 번역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번역 텍스트 분석을 통해 베누티의 이국화가 적용 가능한 이론인지 살펴보았다. 원전 텍스트의 선택과 혼질적 담화 생성을 기준으로 적용 가능성을 측정하였는데 선택한 원전 텍스트가 출발 문화권에서 주변부 문학 텍스트들로 첫 번째 기준을 충족하였다. 그러나 원전의 잔여태가 도착어인 한국어로 옮겨졌을 때, 베누티가 주장하는 한국적 잔여태의 형태를 한 가지 예시를 제외하고는 볼 수가 없었다. 외국 텍스트의 언어-문화적 차이가 제거되고 마치 원래부터 영어로 쓰인 것처럼 번역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번역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해주는 장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번역 텍스트의 경우, 변안이 아닌 이상 누가

36) 같은 곳.

봐도 번역 텍스트에 보이는 흔적을 통해서 번역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미스의 *The Vegetarian*을 제외하고는 베누티의 소수화 번역이론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베누티의 소수화 지향 번역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문화적인 것으로 다수의 언어를 사용하여 소수 문학 작품을 창조³⁷⁾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 문학의 세계 진출을 꿈꾸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수화 지향 번움김, 즉 베누티가 주장하는 이국화 번역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한국문학을 서구 담화에 맞게 번역한다는 것 그 자체가 베누티의 이국화를 실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37) 위 책, 20쪽.

참고문헌

- 김가희, 「‘배경지식의 규범’을 적용한 『빨강머리 앤』. 번역 비평: 문학 번역과 비평, 그 활성화를 꿈꾸며」, 『영어권문화연구』,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 제7권 3호, 2014.
- 김가희·박윤희, 「르페브르의 문학번역 제약 고찰 및 적용: 문학 번역 텍스트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37권 2호, 2016.
- 노현균, 「미니멀리즘(minimalism)과 에이미 험플(Amy Hempel): 현대 미국 백인 문화의 초상」, 『문학과 영상』, 문학과영상학회, 제8권 1호, 2007.
- 몽고메리, 루시, M., 김유경 옮김, 『그린게이블즈 빨강머리 앤』, 동서문화사서울, 2002.
- _____, 조한중 옮김, 『빨강머리 앤』, 하서출판사, 2004.
- _____, 강영희 옮김, 『앤 그린게이블즈 앤』, 한국실록출판문화사, 1988.
- _____, 강주헌 옮김, 『빨강머리 앤』, 세종서적, 2008.
- 박효진, 「번역의 지향점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 ‘잔여태(Remainder)’를 중심으로」, 『영어권문화연구』,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 제9권 3호, 2016.
- 이상원, 「베누티의 이국화와 자국화, 그 적용을 위한 고찰」, 『T and I review』,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제1집, 2011.
- 이형진, 「시 번역 불가능성의 역설 - 두보의 한시 春望(춘망)의 영어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한국번역학회, 16권 5집, 2015.
- 카버, 레이먼드, 안종설 옮김, 『부탁이니 제발 조용히 해줘』에 수록된 『그들은 당신 남편이 아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사채, 1996.
- _____, 손성경 옮김, 『제발 조용히 좀 해요』에 수록된 『그들은 당신 남편이 아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학동네, 2004.
- 한강, 『채식주의자』, 창비, 2007.
- Bellos, David, *Is That A Fish In Your Ear?: Translation and The Meaning of Everything*, New York: Penguin Books, 2011.
- Benjamin, Walter, Steven Rendall(Trans), “The Translator’s Task.” *TTR: Traduction, terminologie, rédaction*, Éditeur, 10(2), 1997.

Carver, Raymond, *They're not your husband and Nobody said anything in Where I'm Calling From*, Vintage Contemporaries, 1988.

Fawcett, Peter, *Translation and Language: Linguistic Theories Explained*, Manchester & Northampton, UK: St. Jerome, 1997.

Han Kang, Smith, D.(Trans), *The Vegetarian*, Portobello, London, 2015.

Montgomery, L. M., *Anne of Green Gables*, A Bantam Book, New York, 1998.

Venuti, Lawrence,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ethics of difference*,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8.

김고금평 외, 「오기·오역도 새로운 시도의 번역...“외국 문화 중심의 해석 필요”」, 『머니투데이』, 2016. 06. 01.

(<http://news.mt.co.kr/newsPrint.html?no=2016053010024867243&type=1&gubn=undefined>)

Abstracts

Venuti's Minoritizing Translation

- Another Name: Foreignization -

Kim, Ga Hee·Park, Hyo Jin·Park, Yoon Hee

Agreeing with Antoine Berman's idea that a bad translation disclaims the foreignness of the text, Lawrence Venuti contends that the real function of translation is to demystify the foreignness of the foreign text in its own language. He opposes to the concept of assimilation that translating a text is to inscribe a foreign text with domestic intelligibilities and interes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largely twofold: one is to speculate on what a good translation is, based on Venuti's minoritizing, or, widely known, foreignizing, translation strategies; the other is to see how to apply Venuti's minoritizing strategies to some of real-life translations. Lastly this paper considers if the strategies of the minoritizing translation might be helpful to the future of Korean literature which is trying to open doors to the global communities that one would think are unreachable.

【Keywords】 Venuti, minoritizing translation, foreignization, Berman, The Translator's Task